

통일홍보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연구원 이 찬 구

目 次

1. 緒 論	3
2. 動向分析 및 対策方向	5
3. 統一弘報의 機能 및 範圍	8
4. 変數關係	11
5. 細部対策	13
가. 內容面(主要問題中心)	13
나. 運營面(運營方法中心)	23
1) 體 系	23
2) 對象地域 및 段階別 方法	25
3) 媒体選擇 및 活用方法	30
5. 結論 및 建議	43

1. 緒 論

큰 衝擊과 새로운 많은 問題를 提起한 「7.4 共同声明」과 「6. 23 特別声明」은 韓民族史가 內包한 對內外的 試鍊을 解決키 爲해 겪어야 할 必然의 鎮痛이라는 점에서 이를 우리는 肯定的인 姿勢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問題는 그러나 四半世紀 以上 期間동안 各方에 集積되어 온 體質性格의 兩極化로 因하여 接觸過程에서 나타나는 雙方의 戰略構造가 一方을 吸收統合코자 하는 技術的인 惡意와 치밀한 計算에 當을 두고 있다는 바로 이 點에 있다.

政府는 우선 戰爭을 抑止하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南北接觸의 繼續을 통해서 北韓을 自由化시키겠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政府의 이같은 態度는 正當하며 거의 變更될 수 없는 基本立場이라 할 수 있다.

東獨戰爭能力을 갖춘 北韓은 平和協定과 南北合作의 名分으로 軍備縮少를 主張하여 對內的으로는 韓國의 對北防衛力量의 弱化를 企圖하면서 對外的으로는 韓半島赤化를 위한 國際與件 造成에 安간힘을 쓰고 있다.

이같은 進展없는 狀況이 繼續되자 이를 바라보는 韓國民의 心理的인 倦怠와 對共警覺心의 解弛가 역연하게 나타나고 특히 「두개의 韓國」을 認定코자 하는 國際輿論動向과 그 속에서 思想的으로 방향(?) 하는 海外同胞들의 精神的 葛藤은 處理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段階로까지 發展되고 있는 느낌이다.

對共警覺心の 解弛와 葛藤 倦怠心理 등은 北韓의 對南心理戰工作의 成果的인 一側面에 관한 問題로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國際輿論이 「두개의 韓國」化 方向으로 기운다는 것은 그러한 與件속에서 南北合作이 外部로부터 強要되어 “上部合作 - 下部汲取”의 戰略으로 韓半島를 赤化코자 하는 北韓 共產集團에게 戰略的인 도움을 주는 現象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같은 一聯의 事態는 「對話있는 對決」로 對內外的 南北對決에서 유리한 高地를 確保코자 하는 韓國의 立場에서는 크게 警戒하고 徹底히 對処해야 할 것이다.

統一弘報는 이를 効率的으로 警戒하고 對処하는 方法論上的 問題이다.

內外國民의 統一問題에 관한 國論統一은 統一弘報政策의 効率的 樹立·運營으로써만 可能하다.

平和統一은 大韓民國이 指向하는 最高의 國家目標이며 10月維新을 통한 體制整備의 主된 名分이었다.

따라서 國力增強과 總力安保 및 總力外交의 바탕이 되는 國民總和도 窮極的으로는 統一問題에 대한 國論統一과 國民的 一體感의 實現 與否에 크게 左右된다고 볼 수 있다. 南北接觸問題는 韓國民 모두의 問題로서 가장 큰 關心事이며 自由主義가 失敗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서도 안되고 納得할 수 없는 方法에 의해 推進되어서도 안된다는 點을 國民 多大數가 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統一弘報 運營方案에 관한 問題를 重視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動向分析 및 對策方向

“서로 上部的 뜻을 받들어”라는 但書까지 붙인 7.4 南北共同聲明 (72.7.4)과 “南北 UN 同時加入不反對”原則을 천명한 6.23 特別聲明 (73.6.23)의 發表는 對外的으로는 지금까지 潛在해 온 「두개의 韓國」觀念을 現實化 내지 普遍化시키는 結果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고 判斷된다.

두개의 韓國이 現實化되는 경우 從來 態度와 變化된 態度의 差異를 如何히 正當化시키느냐 하는 點도 問題가 되고 特히 自由國家의 北韓承認이 增加함에 反해 共產國家의 韓國承認이 不進할 境遇 이로 因한 海外同胞의 心理的 葛藤을 如何히 解消시킬 것이냐 하는 點도 問題가 된다.

또한 對內的으로는 저 두 聲明過程에서 빛어진 對內外的인 平和 共存體制의 具體化로 因한 反共思想解弛傾向과 體制競爭 長期化 豫想으로 因한 南北接觸 倦怠心理를 如何히 國民總和 및 動員의 方向으로 誘導, 轉化할 것이냐 하는 問題도 重要한 課題로 指摘되고 있다.

이같은 對內外的인 諸般 問題를 타결, 해소키 위한 統一弘報의 內容 및 運營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對策方向은 결코 統一政策 自體의 基本的인 對策方向을 벗어날 수 없다는 點이 重要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發表된 統一政策의 內容과 方向을 簡略하게나마 살펴 볼 必要가 있다.

統一政策은 크게 나뉘서 "基本立場" "實踐方案" "施行細則"으로 区分할 수 있도록 構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統一政策의 基本立場은 1970年8月15日에 發表된 소위 「8.15」 宣言으로 이는 南北間 "人爲的 장벽의 段階的 除去"와 "善意的 競争을 통한 關係改善"을 闡明하고 있다.

그후 1年만인 1971年8月31日에 發表된 이른바 「3段階 平和統一 接觸方案」은 이 基本立場에 입각한 實踐方案의 性格을 띤다. 基本立場인 8.15 宣言이 明示한 人爲的 장벽의 段階的 除去原則을 具體化시켜 人道的→非政治的→政治的 接觸으로 明示했기 때문이다.

1973年6月12日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會議時에 發表된 經濟面 및 文化面에서의 南北社會開放 提議는 위 實踐方案에 대한 施行細則으로 볼 수 있다. 人道的 接觸에 따른 非政治的 接觸 內容의 細部的인 提示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內容의 統一政策構造는 南北問題를 一括妥決하는 대신 誤解와 不信부터를 해소해 나가는 式的 段階的 解決原則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한마디로 慎重論이나 조급론이나 할때 慎重論이며 積極的이나 消極的이나 할때 消極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統一弘報의 方向도 統一政策 自體의 이같은 性格構造에 따라 消極的인 方向 즉 平和統一可能性을 認定하되 性急한 낙관론을 警戒하는 方向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即 南北接觸에 대한 倦怠心理를 解消키 위해 統一實現可能性을

認定하되 最少限度의 範圍內에서 할 것이며, 성급한 樂觀論이나 對
共警覺心の 解弛를 막기 위하여 反共思想을 鼓吹시키는 方向으로
統一弘報를 推進해야 할 것이다.

또한 두개의 韓國 觀念이 現實적으로 普遍化되는 狀況속에서 對
北主導權을 掌握하기 위해 統一弘報를 積極的 方法으로 展開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弘報業務를 積極的 方法으로 推進하되 그 內容은 消
極的 方向으로 展開한다는 것이 本方案의 對策方向인 것이다.

3. 統一弘報의 機能 및 範圍

가. 機 能

統一弘報는 統一政策에 관한 弘報로서 이와 關聯하여 두가지 機能을 갖게 된다.

그 하나는 工作機能으로서 달리 表現하면 創造的 機能이다.

統一政策의 內容을 單純히 解說하는 것만으로는 統一政策의 正當性을 說得하기 困難하므로 統一弘報엔 必然的으로 心理戰的인 工作 機能이 隨伴되기 마련이다. 北韓側 無誠意와 好戰性을 認識시키기 위하여 統一弘報와 時期的으로 一致시켜 武裝間諜 檢舉事實을 發表하는 등의 方法을 採択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教育機能으로서 이는 國民 說得을 위한 基本的 機能이다.

統一政策內容의 單純한 전단이 아니고 그 正當性에 대한 確信에 到達시키고져 하기 때문에 諸般 教育的인 機能을 導入하게 된다. 教材 및 視聽覺教材등을 活用한다든가 週期的인 巡廻講演을 施行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統一弘報는 한편 一般弘報와의 關聯下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機能을 갖는다.

그 하나는 補完機能으로서 달리 表現하면 統一弘報와 一般弘報間의 平面的 機能이다. 한마디로 統一弘報와 一般弘報는 相互 補完的인 關係에 있다.

또 하나는 指導機能으로서 달리 表現하면 立体的 機能이다.
統一弘報는 最高의 國家目標인 統一政策에 관한 弘報인 까닭에 이
를 위한 国力增強 내지 體制整備에 관한 일반 弘報를 指導하는
立場에 서게 된다.

統一弘報가 一般弘報에 대하여 갖는 이같은 關係와 機能的 性格
때문에 결국은 統一弘報의 範圍가 어디까지나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나. 範圍

좁은 意味에 있어 統一弘報는 南北間 統一接近問題와 關聯하여
韓國의 統一政策의 正當성과 政府의 統一努力을 宣傳하는 行爲로
볼 수 있다.

統一現實은 統一接近이 具體化될때 可能하고 統一接近은 南北間
關係改善이 이뤄져야 可能하며 이 關係改善은 또한 北韓의 韓半島
赤化野慾拋棄가 있어야만 可能한 것이다. 좁은 意味의 統一弘報는
이같은 北韓의 赤化拋棄→關係改善→統一接近의 進行過程에 관한 변
수(變數)를 宣傳方法에 의해 應用 處理해 나가는 것을 高유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一般弘報의 現實은 北韓의 赤化野慾拋棄를 可能케 하는 唯一한
方法이랄 수 있는 国力增強과 이를 위한 10月維新的體制整備 및
領導者 中心의 總和團結을 中心的으로 다루는 立場에 있다.

그런데 統一弘報의 1段階 對象인 北韓의 赤化拋棄는 一般弘報의
重點的 對象인 国力增強에 의해서만 可能하므로 統一弘報를 內容

및 效果面에서 具体化하고 一般弘報를 같은 面에서 理念化하기 위해서는 이 두 弘報領域은 接合. 調和되어야 한다.

아런 意味에서 赤化拋棄→關係改善→統一接近에 관한 弘報는 狹意의 統一弘報요, 一般弘報의 重要對象인 国力增強問題까지를 包含시킨 体制整備 및 國民團結→国力增強→赤化拋棄→關係改善→統一接近에 관한 弘報는 廣意의 統一弘報의 範圍라 볼 수 있다.

이에 統一弘報는 一般弘報의 指導原理라 할 것이다.

4 . 變 數 關 係

統一弘報의 效果를 提高함에 있어 考慮해야할 몇가지 變數가 있다. 우선 一般弘報가 統一弘報를 떠나 国力增強 問題만을 中心하여 統一弘報에서 遊離된 채 獨自의으로 運營되면 또는 統一弘報가 現實 問題를 外面한 채 將次問題만을 다루게 되면, 一般弘報의 理念化 및 統一弘報의 具體化的 不在로 인해 그 效果는 減損된다.

이 點은 統一弘報의 範圍 問題와 關聯하여 이미 앞에서 論及한 바 있다:

따라서 統一弘報의 效果度는 一般弘報의 遊離度와 逆比例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統一弘報의 效果는 統一弘報體制가 지닌 教育 機能의 發展度와 正比例한다. 이 點은 基本的인 問題로서 再論할 餘地가 없다.

統一弘報의 效果는 또한 一般住民이 어느程度的 生活水準에 있는가에 따라 左右되는 一面을 갖고 있다. 即 生活水準이 向上되지 못한 大衆에게는 名目과 形式에 있어 疎外階層을 煽動·유인하는 共產主義集團과의 對決을 主張하는 統一弘報인 만큼 統一弘報를 遂行함에 있어서는 그 對象의 生活水準 如何에 따라 切適히 그 接近方法과 說得態度가 調節될 必要가 있다. 結局 統一弘報의 效果度는 生活水準의 向上度와 正比例한다고 볼 수 있다.

統一弘報의 效果는 또한 統一政策의 合理性 與否와도 直結된다. 統一政策 自体가 國民說得을 위한 合理性 내지 現實性 등을 缺如한 경우에는 統一弘報의 效果는 期待될 수 없기 때문이다.

統一弘報는 그러므로 그 效果에 있어 統一政策의 合理度와도 正比例한다고 볼 것이다.

이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統一弘報의 效果度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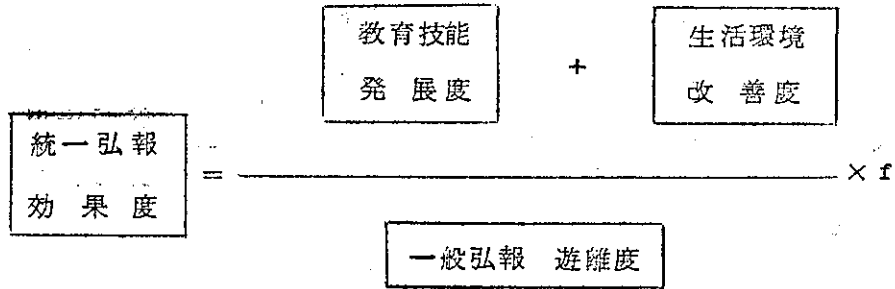
- 1) 一般弘報의 尤리도와 逆比例하고,
- 2) 教育機能의 發展度와 正比例하며,
- 3) 生活水準의 向上度와 正比例하고,
- 4) 統一政策의 合理度와 正比例한다.

그런데 여기서 重視할 問題는 統一政策의 合理度가 지닌 可變性이 極히 最少化되어 있다는 이 点이다.

即 統一政策은 다른 政策 보다도 더욱 長期的인 안목에서 極히 慎重하게 決定되는 關係로 그것은 조령모개식의 가변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統一政策의 合理度는 一定期間동안은 變動되지 않으므로 이는 不變指數로서 作用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關係를 圖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f는 不變 指數인 統一政策 合理度임)

그러므로 統一弘報政策을 運用함에 있어서 위는 이와 같은 諸變數들을 考慮속에 넣고 效率의으로 應用 處理해야 할 것이다.

5. 細 部 對 策

가. 內容面 (主要問題中心)

1) 國內弘報指針

가) 統一信念고취문제

南北關係가 6.23 特別声明의 發表로 名實共히 對內外的으로 平和共存体制의 長期化突入段階로 進入돼 들어가므로써 一般國民이 南北接觸에 關係 靚태심리를 갖게 될 素地가 發生하였다.

이런 時期일 수록 基本的 자세면에서 平和統一은 멀고 험한 길 이긴 하나 끝내는 實際로 達成될 수도 있는 可能態임을 指摘해 줄 必要가 있다.

즉 靚태심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統一 可能性을 認定하되 최소화 시켜서 인정하고 說得方法에 있어서는 客觀的인 論提提示가 있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結局 樂觀論이나 悲觀論이나 할 때 悲觀論은 아닌 것이며 同時에 樂觀論과도 區別되는 慎重論이라 하여 마땅하다.

平和統一達成可能性에 關係 論提에 있어서는 이미 經濟社會學 分野의 機能主義 내지 集中理論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기는 하나, 이같은 收斂理論의 接近方法만 가지고서는 充分한 說得이 不容 易할 것이다.

역사학분야에서도 평화통일달성가능성에 關係 理論開發의 余地가 없지 않고 政治學的인 면에서도 理論開發이 可能할것 같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古代原始時代로부터 시작한 人類歷史의 發展과정이 國家社會의 數字를 減少시키고 그 規模를 擴大하는 方向으로 즉 1萬여개의 氏族的 國家社會가 수천개의 부족적 國家社會, 천여개의 大部族的 國家사회, 수백개의 민족적 國家사회, 백여개의 中央集權化된 大민족적 國家사회로 發展돼 내려 오면서 오늘날엔 세계 분단의 최소단위인 兩大진영으로까지 分습하다가 이제는 또 다시 多極化 내지 多變化라는 過渡期的 反動現狀을 징검다리로 삼아 양대진영내 다수국가들이 진영을 超越하는 相互 交流, 接近을 일삼으면서 이제 1.5진영 체제 속으로 進入돼 들어가는 단계에 人類는 지금 서 있다는 들의 歷史意識을 지적할 必要가 있다.

便稱, 國家領域擴大論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人類歷史의 全 과정은 國家社會의 規模와 數字가 逆比例하는 方向으로 發展돼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南北의 분단은 그 과정과 방향에 逆行하는 일차적인 반동현상에 불과하다는 論理가 成立하므로 平和統一 實現可能性을 說得하는 方法으로서 한 번 좀 考慮해 보자하다.

政治學的 어프로치에 있어서도 分斷原因消滅論 등으로써 效果的인 說得이 可能할 것 같다.

分斷의 原因이 消滅되면 統一狀態가 回復된다는 입장이다.

分斷 原因을 外因과 內因으로 가르고 양대진영간의 極限的 對決을 外因, 우리民族 주체역량의 不足을 內因이라 한다면 오늘날 分斷의 外因이었던 진영간의 極限的 對決은 대부분 緩和 내지 一部

分 消滅되고 있으므로 남은 問題는 그 內因이었던 主体力량의 不足을 메꾸기 위해 南北이 協助해야 된다는 論理이다.

이 立場은 南北間 協助를 위해 먼저 不信과 誤解를 풀도록 人事往來부터 추진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政府의 對北接觸 態度와도 合致된다는 點에서 說得效果面에서도 合理的인 어프로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諸般 論理를 紹介함에 있어 끝으로 이 모든 平和 統一達成可能性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의 交流거부와 無誠의로 인해 南北關係가 實質적으로 改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指摘하면서 統一接近 阻害要因이 바로 北韓側의 이같은 無誠意임을 강조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나) 分斷固定化問題

南北間 平和的 體制競爭이 6.23 特別聲明에 의해 거의 制度적으로 長期化 段階로 突入된 現時點에서 對內外的으로 韓國政府의 唯一合法性 내지 正統性에 관한 強調態度는 緩和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強調의 繼續은 現實情勢를 無視하는 것으로 認識되어 說得力의 減損을 結果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北韓社會의 自由化誘導可能性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 먼저 公산진영의 自由化傾向을 指摘하면서 北韓도 開放化 내지 自由化될 運命을 지니고 있음을 說明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北韓社會가 지닌 이같은 自由化可能性이 南北間 人事交流過程에서 더욱 促進될

것이며 北韓은 이로 因해 그 體質의 變化가 강요되리라는 우려 때문에 現在 人事交流를 反對하는 것으로 判斷된다는 점까지를 說明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이다.

그 다음, 南北統一接近의 外的 條件이 東·西獨의 경우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分斷의 固定化가 統一接近을 根本적으로 沮害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

즉 東·西獨의 경우에는 戰勝四強國家인 美·英·仏·소 네 나라가 東·西獨間의 긴장완화는 원하면서도 그 大國化 可能性 때문에 東·西獨의 統合自体는 反對하므로 統一의 外的 條件에 關한 限한반도의 경우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은 客觀的 事實이다. 美·英·仏·소 네 나라가 各己 西獨과 東獨에 對해 占領軍法과 聯合國協定을 가지고 지금도 間接的인 制動機能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效果的인 說得을 위해 必要할 것 같다.

끝으로 統一의 內的 條件은 東·西獨에 비해 不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金日成의 好戰性을 지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統一의 外的 條件은 有利하면서도 冷戰의 人物인 「울부리히트」가 물러가고 協商的 人物인 「호네커」가 集權하고 있는 東獨과는 달리 極히 排外적이고 獨재적 人物인 金日成이 集權하고 있는 北韓을 상대하고 있는 까닭에 한반도의 對內的인 統一接近 條件은 東·西獨 경우보다 훨씬 不利하다는 것이 獨逸과 韓半島間의 統一條件이 지닌 차이라고, 說得할 必要가 있다.

이처럼, 分斷固定化問題와 關聯하여, 韓國政府의 唯一合法性 強調態

度를 緩和해서 政府의 統一努力과 誠意를 表示하고, 北韓社会自由化 유도가능성을 指摘하여 韓國의 자신감을 부식시키며, 統一의 外的的與件이 유리함을 지적하여 統一可能性을 暗示하면서, 그 內的的與件은 金日成集團의 호전성 때문에 獨逸보다 不利하다는 點을 지적하여 統一接近努力의 이니시에이티브를 잡을 必要가 있다.

다) 對共警戒論提問題

北韓을 警戒해야 한다는 論提를 提示함에 있어, 첫째 南北韓 1人當軍事費를 比較, 적시할 必要가 있다. 北韓은 1人當軍事費가 53.6불이고 우리는 8.97불이라는 事實이 北韓의 체질을 理解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北韓權力構造가 全的으로 “革命엘리트”中心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층세력이 하층부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은 당분간 警戒하지 않을 수 없다는 點을 指摘해야 할 것이다.

셋째 金日成의 한반도적화야욕을 加速化시켜 주는 것으로 判斷되는 要因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

즉 美國 日本이 우리를 지원하고 소련 中共이 北韓을 지원하면 2 : 2式의 均衡關係가 中共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데도 日本만이 南北韓 동거리외교를 試圖하므로써 力學的으로는 北韓과 우리간의 均衡關係가 2.5 : 1.5의 不均衡의 方向으로 기우는 듯한 狀況이기 때문에 이 狀態의 繼續의 結果가 北韓의 한반도적화 可能性의 成熟을 의미한다고 오관할 可能性이 있음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 이와 關聯하여 또 하나의 적화야욕 加速化 要因으로서 아시아 地

域에 있어서의 分断国家의 一般現況을 들 수가 있다.

中国의 경우 과거 国民党과 共産党간의 30여년에 걸친 분단
각축이 두차례의 国共合作 結果 中国領土와 住民의 大部分이 赤化
되어, 中国의 分断問題가 共産主義 勝利의 方向으로 處理되었다는
점, 越南도 공산월맹과 자유월남간의 休戰은 이루어 졌지만 자유월
남영토의 75% - 住民의 42%가 공산 수중에 떨어진 狀態에서
休戰을 맺어, 領土面에서는 共産對 自由勢力이 7 : 1의 關係를 보
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캄보디아도 프놈펜을 除外한 全国土가 共
産 수중에 함락되었다는 점 등을 指摘하여, 金日成 立場에서는 한
반도만 赤化되지 않을 理가 있느냐는 式의 망상을 지닌 채 眞정
한 南北關係改善을 意識적으로 外面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
可能性이 있음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

네제 向後 十年間 重点對備必要性を 강조해야 할 것이다.

力學의 세계는 1次함수가 適用되지 않는 世界이다.

1人의 힘보다 3人의 힘은 3倍가 아닌 5倍로 나타나는 것이
原則이다.

西獨은 人口가 東獨의 3.6배이면서 經濟力은 6倍이다. 이것은
力學關係上 正常的인 境遇인 것이다.

韓國은 人口가 北韓의 2.2배이면서 經濟力은 마땅히 3.5倍 以
上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1年 現在 2.4倍에 불과하다. (GNP가
北韓 : 33億불, 韓國 80.3億불)

東獨이 西獨과의 적대關係의 계속이 자신의 損害임을 판단하고

스스로 문을 열고 적대관계를 포기한데 반해 北韓이 문호개방을 거부하고 적화야욕을 다지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最近 數年間に 나타난 韓國經濟의 成長速度를 勘案할 때 向後 10年이면 韓國經濟가 北韓經濟를 3, 4倍 以上으로 圧倒하리라는 것은 外國專門家들도 인정하는 바다.

北韓의 對南戰略 戰術은 이 期間(十年)이 지나기 전에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겠다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즉 對內·外的으로 연방제(고려연방공화국제의 73.6.23) 등의 合作을 주장하여 上部合作→下部吸收의 戰略으로써 1) 심리전공작, 2) 지하당공작, 3) 유격전공작 등의 3段階 적화전술을 展開해 나간다는 것이 그들의 한반도적화公式일 것으로 透視된다.

向後 10年間 이같은 戰略·戰術公式을 適用하려는 金日成은 자신의 年壽으로 미루어 보드라도 거의 兇惡的인 努力을 기우릴 것으로 判斷된다.

即 10年이라는 期間은 韓國經濟가 北韓經濟를 3, 4倍 以上으로 압도할 수 있는 期間이면서 同時에 金日成자신으로서도 이 期間을 넘기면 큰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고령이 되고마는 期間인 까닭에, 우리는 向後 10年을 重點的으로 對備해야 한다는 論理가 成立한다. 平和統一可能性을 原則的으로 認定하면서도 반공사상무장을 強化해야 한다는 主張은 이런 点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라. 民主信念鼓吹問題

向後 10年間の 對北重點警戒努力을 要請하면서 同時에 民主

社會의 우월성을 지적할 必要가 있음은 勿論이다.

個人的 自由가 保障되고,

萬人의 平等이 保障되며,

法治主義가 實現되고,

多樣的 文化風土가 健在하며

中産層이 絶對多數로 되어있는 韓國社會의 民主的 優越성을 指摘하면서, 北韓에는

個人的 自由가 유린되고

階級政策이 組織化되어 있으며

法은 黨의 政策執行道具이고

모든 住民에게 劃一的 教養이 強要되며 全住民이 貧困속에서 生存을 이어가고 있다는 現實을 詳細히 紹介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祖國의 밝은 미래상을 紹介할 必要가 있다.

2) 海外弘報指針

- 運營方法은 別途(5 - 나, 參照) -

가) 對外國政府

對象의 性格에 따라 接近方法과 설득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效果的일 것으로 判斷된다.

友好國家에 대해서는 우리의 南北社會完全開放提議를 거부한 北韓의 基本戰略이 對南吸收統合의인 赤化戰略임을 紹介하고 이의 부당성을 指摘하면서 韓國에 對한 政治的 協助와 유대강화를 유도할

必要가 있다.

中立國家에 대해서도 社會開放을 거부한 北韓側 態度的 不當성을 指摘하면서 對北 經濟 締結과 對韓 지지 협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6. 23 聲明 以前보다는 中立 國家를 設得하는 것이 훨씬 더 容易하리라고 본다.

左傾 國家에 대해서는 韓國의 平和 尊重 姿勢와 誠意를 강조하고 北韓 社會를 人위적으로 變質, 전복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北韓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끊고 南北韓 政治 問題에 關한限 中立的 立場을 취해 줄것을 要求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共產 國家에 대해서도 6. 23 聲明에 나타난 韓國政府의 對北 平和 共存 努力과 誠意를 指摘하고 北韓 體制를 吸收 統合할 의사가 全無함을 強調하면서, 北韓의 高집을 變更시키는데 協助해 줄 것과 韓國과의 通商 開設을 說得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

其他 問題 國家에 대해서는 예컨대 過去 友好 關係를 맺어 오다가 中立으로 態度를 바꾼 일이 있는 프랑스 (27 차 유엔 總會에서 韓國 問題에 기권했음)나 北韓을 承認한 캐나다 같은 問題 國家들에 대해서는 위의 두가지 方法을 併用하여 說得하는 것이 效果的일 것이다.

이같은 對象別 對策을 具體化하여 長期的인 眼目에서 幅넓은 接近을 시도할 境遇에는 6. 23 聲明以後의 海外 弘報 效果는 提案될 것으로 判斷된다.

나) 對海外同胞

海外同胞에 대한 効率的인 統一弘報를 위하여 반드시 考慮해야 할 事項은 海外同胞의 構造的 性格이다.

便宜上 庶民層과 富裕層으로 区分할 수 있다.

70万 全体海外同胞의 86%인 約 60万의 海外同胞가 살고있는 日本을 두고 말한다면, 이들 (60万在日교포)의 大部分은 庶民層이다.

이들 絶對多數의 재일교포는 民族的 差別待遇와 貧困한 生活속에서 深刻한 열등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들에게 直接的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大體로 祖國을 敬遠하는 實情이다.

이들에게는 祖國의 發展上을 大的으로 宣傳, 誘示하여 優先 최저선의 民族的 자부심을 차츰 회복시키면서 南北接觸에 임하는 政府의 주도권장악을 보여 줄 必要가 있다.

특히 이들 庶民層海外僑胞에게는 祖國의 따뜻한 福祉社會 구축노력과 그 밝은 미래상을 重點的으로 強調하여 그들로 하여금 '골고루 잘 살게 한다'는 허울좋은 구호를 내 거는 共產主義宣傳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即 이들 庶民層에게는 祖國의 發展上을 大的으로 宣傳誘示하고 政府의 統一主導權掌握을 確信시켜 民族的 自부심을 회복시키면서 정부지지를 誘導해야 할 것이다.

극소수 부유층에 대해서는 別途의 弘報戰略이 樹立되어야 한다.

即 이들 少數의 부유한 海外同胞는 自信의 힘으로 成功했다는

점에서 自高意識을 지닌채 祖國을 忘却하는 傾向이 짙게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그에 適切한 別途對策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들에게는 인간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鄉愁心과 祖國愛를 刺戟한 後 祖國의 統一問題에 關心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에 參與하는 자발적 사명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들 부유층은 生理的으로 共産主義를 증오하는 까닭에 庶民層에 接近하는 方法이 그대로 適用되지는 않을 것이다.

福祉社會의 미래상 보다는 民族의 永遠性 不變性 그리고 祖國의 必要性等을 認識시켜 積極的이고 자발적인 使命感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 運營面 (運營方法中心)

1) 體 係 (弘報體係 單一化現況)

現在 弘報體制은 對內的인 것이든 對外的인 것이든 大體로 單一化되어 있기는 하다.

각부처의 公報局長級이 參與하는 中央情報部內的 國家心理前委員會에 國土統一院에서는 教育弘報室長이 參席한다.

各部處의 公報課長級이 參與하는 中央情報部內的 教育 및 啓蒙調整審議委員會에 國土統一院에서는 教育担当官이 參與한다.

이 啓蒙 및 教育調整審議委員會는 위의 國家審理前委員會에 直屬된 下部機關이며, 이들 國家心理戰委員會와 啓蒙 및 教育調整審議委員會는 對外, 對內的인 모든 弘報를 企劃한다. 統一弘報體係가 單

一化運營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意味에서이다.

統一弘報政策과 統一弘報에 관한 戰略, 前述은 위 두 機關에서 決定되므로 國家心理戰委員會와 啓蒙 및 教育調整密議委員會로 하여금 각 部處에서 實施하도록 統一弘報指針을 下達할 때 国土統一院이 생각하는 統一弘報指針이 充分히 반영되어야 한다.

當院은 이에 반영할 수 있는 充分한 檢討를 거친 統一弘報指針을 위 두 機關에 提示할 必要가 있다.

即 當院은 위 두 機關을 소집 運營하는 中央情報部에 統一弘報指針을 提示하여 各部處로 하여금 자기 部處의 性格에 맞는 適切한 方法의 統一弘報를 할 수 있도록 格別한 關心과 努力을 기우려야 한다.

當院이 이같은 任務와 機能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 前述한 統一弘報體系單一化運營은 當院에 관한 限 無意味한 것이 될 것이다.

2) 대상·지역 및 단계별방법

가) 국 내

1. 대상별방법

통일연수소의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각부처의 협조하에 국내 모든 분야의 지도급인사를 초치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차 当院이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統一協議體를 구성할 때에 그 기간 요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 및 장차의 國民總和와 對共團結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본다.

새마을지도자(내무부협조),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을 포함한 지방 유력인사(내무부협조), 시군공보요원(문공부 및 내무부), 3군정훈장교(국방부), 3군교급장교(국방부), 문제성대 학생(문교부), 반공도덕교사(문교부), 교회목사(문교부), 소비상계획관(총무처), 교급공무원(총무처), 국영업체간부(정보부 및 내무부협조) 등을 초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각계각층에 통일홍보전달교육효과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이들은 남북대결에 있어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心理戰 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별 방법

농어촌에는 영화 강연 등을 시군공보요원이 상영, 주력토록하고 동시에 새마을 지도자들을 통한 전달교육방법으로써 필요시에 사랑방좌담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내무부와

진밀한 협조체계를 갖춰둘 필요가 있다.

낙도에는 현재 국토통일원 교육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통신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사랑방좌담회를 실시하며 해군 정훈감실이 실시해 오는 진료, 위문품, 영화, 강연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포, 정읍, 마산, 대구 등의 야당기질이 생리화한 맹목적(?) 반발지역에는 특별강연반을 편성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하되 정부의 지역개발투자를 증액하여 정부입장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높은 차원의 설득방법을 채용해야할 것이다.

기타 지역에는 當院 교육홍보실이 年1회 실시하는 순회강연을 年2회로 늘리고 이동통일관전시내용도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수시 조정되어야할 것이다.

3. 단계별방법

현재와 같이 남북접촉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에는 통일홍보내용과 力點을 주로 국민의 總和團結과 国力增強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장차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실시될 때에는 비축한 力量을 발동시키되 그것을 體制守護의 方向으로 유도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단계적인 방향감각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통일홍보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일이라 생각된다.

나) 해 외

외국인사는 정부요원과 학자 및 언론인 그리고 야당간부

등으로 나누어 이들을 접촉, 설득할 사람을 역시 국내에서 선정하여 같은 분야와 다른 분야의 국내인사를 混成팀으로 구성해서 외국의 각 분야 인사를 집중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의 야당간부를 설득코자 할 경우 먼저 국내의 야당인사를 접촉시킨 다음에 국내의 학자 및 언론인을 접촉시키고 맨 마지막에 국내의 정부인사를 접촉시키는 式의 효율적인 方法을 채용해야 그 효과가 신속하고 다대할 것이다.

외국학자 및 언론인을 설득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 안의 신문 또는 방송에 한국특집 기사를 실리거나 방송특집을 편성, 이를 통해 그나라 안의 외국인 및 해외동포를 간접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동포는 유력인사와 일반계층으로 구분되며, 일반교포는 해외홍보관의 책임하에 친목회, 기관지 등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이들을 초치하거나 해외여행자를 통한 방문과정에서 설득하기 위하여 현재 해외여행자에게 실시하는 출국전보안교육을 지식층과 일반층으로 나뉘서 지식층에 대해 집중교육하는 방향으로 그 교육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문공부산하 대한공론사가 실시하는 해외여행자 일괄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행자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3년 1월 5일에서 同年 6월 29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 출국전보안교육과정을 거친 해외여행자 총수는 12,203명이다.

이중에서 大学출신자 수가 5,592 명으로서 약 半수에 달하며, 이를 직업분야별로 살펴 보면 공무원 : 344 명, 종교인 ; 290 명, 의료인 ; 283 명, 교육자 ; 237 명, 은행원 ; 177 명, 교수 ; 173 명, 언론인 ; 153 명, 사회사업 ; 108 명, 연구원 ; 34 명, 법조계 ; 14 명, 정치계 ; 7 명, 작가 및 음악가 등 ; 8 명 小計 1,828 명이었고 회사원 5,378 명중 대학졸업자는 3,764 명이었다.

每週 3 회 (月 , 水 , 金) 式 실시하는 일괄교육을 지식층 ; 2 회 , 일반층 ; 2 회로 배분 실시할 경우, 지식층과 일반층의 수를 비슷하다 (前述) 고 보면, 每回의 수강자수는 122 명이 된다.

현재 매주 3 회씩 실시할 때의 1 회 평균 수강자 수는 163 명이다.

또한, 여행자 총수 12,203 명중 일본여행자가 5,781 명이나 되어 전체의 47 %에 달하고 미국여행자가 3,169 명으로서 전체의 26 %였다.

결국 전체 여행자중 4 분의 3 인 74 %가 일본 또는 미국여행자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일본과 미국은 해외교포 총수의 95 %에 달하는 해외교포가 살고있는 나라 (일본 ; 86 % , 미국 9 %) 로서, 특히 일본은 조총련의 영향하에 정부를 지지하는 교포의 수와 태도가 극히 미온적이며 미국은 재미한국해외홍보관의 망명 등의 문제가 빚어졌을 만큼 큰 문제점을 안고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매주 2 회 실시하는 지식층에 대한 교육은 이 두 지역

즉 일본과 미국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지식층과 일반층을 나누고 교육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류접수시에 분리하여 교육일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해외여행자 출국전 보안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조정,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지역별 방법

해외통일홍보 역시 지역면에서는 문제지역인 아랍권, 남미, 서구, 일본 등과 기타地域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랍권에는 아랍民族主義의 生理를 감안할 때 한국통일문제가 결국은 民族主義문제로서 한국정부의 남북사회완전개방제의(6.12) 및 유엔동시가입불반대 원칙천명(6.23) 등도 한국정부의 민족주의 추진노력의 일면임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南美地域국가에 대해서는 큐바, 칠레 등 좌경국가들의 영향으로 정치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理念 및 現狀에 있어서의 공동대처 필요성을 암시할 필요가 있다.

西歐에 대하여는 아시아의 「레땅뜨」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예를 들어 동독의 호네커와 북한 김일성이 자기 서독과 한국에 대해 갖는 자세가 判異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日本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정치 「이메오로기」의 體質化가 민주경험의 日淺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을 日本이 未久에 극좌 또는

극우의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공산세력에 대한 현실적인 공동대처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바탕위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정당성을 인식시켜 한국에 대한 지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단계별방법

외국정부에 대하여는 현재처럼 남북접촉이 교착된 상황하에서는 이해관계를 수립 또는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경제유대를 맺어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고 통일홍보 및 외교를 전개해야 하고, 남북간 교류가 실시될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깨어질 수도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한국과 맺어진 경제관계에서 한국내에 심겨진 자국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정치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단계 및 상황에 적절한 통일홍보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3) 媒体選択 및 活用方法

가) 媒体選択基準

홍보효과를 증대하고 북한과의 정면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홍보매체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두가지 원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자극성(刺戟性)의 원칙이요, 또 하나는 은밀성(隱密性)의 원칙이다.

자극성의 원칙은 홍보효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홍보대상의 視覺과 聽覺을 자극하는 입장이고, 은밀성의 원칙은 72년 11월 11일 이후 남북간 상호비방을 중지하자는 약속에 따라 취하게 되는 입장이다.

자극성의 원칙만 강조하자면 군중집회를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으나 이는 상호비방중지조항위반문제가 발생하므로 은밀성이 보장되는 바탕위에서 처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은밀성의 원칙마저 없다면 반공사상 무장이 해이해지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대결이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은밀한 방법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통일홍보의 매체선택은 모든 매체중에서 자극성을 가장 많이 지닌 매체를 선택하여 이를 공개적인 상황을 피해 비공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두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각종 활용매체의 적성을 평가해 보고자한다.

나) 活用媒体適性評價

일반적으로 현대국가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홍보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기관지, 강연, 교과서, 영화 등이다.

이들 8대 매체를 자극성의 원칙에 의해 그 적성 여부를 평

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청작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과 청각만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시각만을 자극하는 것으로 자극효과순위를 정한다면 T·V와 영화 강연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으로 자극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청각만을 자극하는 라디오로 볼 수 있다.

기타의 신문, 잡지, 기관지 교과서 등은 시각만을 자극하므로 자극효과 최하위이다.

그런데 은밀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T·V와 라디오는 은밀성이 전혀 없고 신문과 잡지도 은밀성이 낮다.

이에 비해 기관지와 교과서는 은밀성이 비교적 높고 영화와 육내강연(강의 포함)은 은밀성이 가장 높다.

결국 T·V, 라디오는 자극효과는 있으나 은밀성이 없고 신문, 잡지는 은밀성은 없으나 자극성이 약간 있다.

기관지와 교과서는 자극성은 약하나 은밀성은 있다.

영화와 강연(육내)은 자극성도 있고 은밀성도 있다.

그러므로 T·V라디오는 白色선전에 적합하고 신문·잡지는 白色선전과 灰色선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관지와 교과서는 灰色선전에 활용할 수 있다.

육내강연과 영화는 필요에 따라 黑色선전매체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영화(특히 반공영화)의 경우 제작과 편성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영화의 특성은 T.V와 마찬가지로 시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효율적인 매체라는 점에 있다. 또한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특수하다. 즉 지식층으로부터 문맹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기때문에 대중성을 띄고 있다.

정부의 영화정책을 보면 자주국방 자주경제 자조정신의 이른바 「三自」정신으로 설정되어 있어 모든 작품이 이와같은 정신을 내포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작품이 되도록이면 반공, 계몽적 성격을 띤 영화이기를 바라겠지만 영화가 본래 대중성과 동시에 예술성의 兩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어떤 「메시지」만을 담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태도도 강요보다는 종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영화제작자들의 모임인 제작자협회자체가 정부의 그러한 정책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取해 年 250편의 영화가운데 적어도 50편쯤은 반공계몽적인 작품을 제작하도록 자체 결의를 하고 있다.

年 50 작품이면 전체의 20%정도인데 반공과 계몽이 각각 半씩을 점한다.

69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2백 31편가운데 반공영화는 19편으로 약 8%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액손」물의 위주가된 반공영화가 15편, 반공첩보물, 반공애정물, 반공희극, 반공종교극이 각각 1편씩 차지하고 있다.

결국 반공영화는 주로 「액손」물이 주류가 되고있는데 바로 이
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액손」물은 흔히 폭력 음모 납치 등 반사회성을 담기 마련인
데 반공영화가 오직 반공이란 명분만으로 폭력 음모 납치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도덕 윤리면에 끼치는 영
향을 생각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다.

또한 「액손」물에 치우치다 보면, 유사품이 되기가 쉽고 결국
유사품끼리 흥행경쟁을 하다 보면 앞서 말한 반사회적 행위를 과
장 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이같은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과
장은 자연 관객들로부터 外面을 당하게 되기 쉽다. 오히려 본래
의 취지인 반공의식양양에 逆기능을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수많은 외국영화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한국영화를
비교해 보면 低質이라는 말을 면하기 어려운데, 그 저질에 관한
限 반공영화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의 여론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국산영화 보다도 더욱 저질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판에 박힌 듯한 內容으로 관객들이 반공영화에
食傷해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자연 반공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흥행성과를 올리기 어려우니까 제작비를 되도록 줄이는 수
밖에 없어 더욱 더 가일층의 저질화를 촉진하는 결과가 되고 만
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예술이 정치적 이데오로기를 담지
않고 오직 순수한 예술의 본령을 파고 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북한의 남침야욕의 위협 속에 있는 현실하

에서 국민의 사상무장을 게을리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술에도 반공정신이 담겨지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메시지」는 영향력이 큰 영화에서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공 「메시지」를 차원높은 예술의 수준으로 승화시킬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반공영화가 예술의 수준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저질에서 맴돌고 마는 병폐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작가들의 수준

작가들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투철한 연구가 없고 또한 북한의 실정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작가들 스스로가 공산주의에 대해 더 연구하자고 자체 결의를 한 일까지 있었고, 또 당국에서도 반공영화 작가들을 위해 당국 견학 등을 통해 인포메이션을 주어 오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아직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공영화의 경우는 정부수준에서 본격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작가들을 선정해서 충분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 예술의 문제

반공영화에서 흔히 국군이 혼자서 복귀군을 수십명씩 해치우는 초인적인 장면을 볼 수 있다.

즉 아군의 총 한 바방에 복귀군은 무더기로 쓰러지는 희극적인 연출이 많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실화의 효과를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리얼리티」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이러한 공식적인 연출방법이 반공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食傷을 더욱 부채질 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전편이 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미숙한 장면 때문에 영화전체에 주는 「이미지」가 손상되기 쉬운 것이다.

아무리 무용담도 좋지만 좀 더 「리얼리티」를 살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3. 리얼리티와 그에 대한 制約

반공극의 효과를 더욱 살리기 위해 일부의 영화인들은 「리얼리티」를 살려 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만희 감독의 “7인의 女포로”같은 작품이 바로 그것인데, 몇 가지 點에서 말썽이 일어났다.

괴뢰군관 신성일이 너무 인간적인데 비해 국군통신병으로 나온 구봉서가 너무 부족한 인간으로 나왔다는 점이 그것이다.

결국 많은 論亂이 있었지만 이만희감독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고 재촬영한 일이 있었다.

또 유치진 原作에 유현목 감독 “나도 人間이 되련다”는 반공영화에서는 북한의 공장·위원장 책상위에 금붕어가 노는 어항이 문제가 되었는데, 감독은 어항에 갇혀있는 금붕어가 북한의 억압에 갇혀있는 북한주민에 비유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官에서는 북한에서 금붕어가 노는 어항을 놓고 볼만큼 여유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시비가 벌어진 일도 있었다.

결국 이같은 일이 있는 뒤, 반공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공영화를 더욱 도식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영화 전편을 배경으로 해서 個個 부분에 대한 효과를 살려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품전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장면에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T.V의 반공물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김동현씨가 반공영화의 경우에도 이를테면 표현의 「바로메타」가 되어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反共映画에 있어서 表現의 한계가 분명히 確定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勿論 藝術的인 水準으로 反共映画가 승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大前提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 反共映画에 대한 提言 -

우리나라 實情에서 그동안 反共映画가 興行成績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自他가 公認하는 일이다.

興行이 수지가 안맞으니까 製作費를 되도록 안쓸려고 하고 또 製作費를 안쓰니까 좋은 映畫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또 興行이 안되고 하는 式의 惡循環이 되꾸러 되고 있는 形便이다.

黃 順元作 유 현목 감독의 “카인의 후예”도 作品으로는 成功했지만 興行에는 실패한 좋은 예이다.

어차피 反共映画가 一般에게 反共意識을 고취시키는 메시지의 宣傳役割만을 할 바에야 政府에서 스스로 反共映画製作에 本格的인 大規模의 映畫事業을 벌려 볼 만도 한 일이다.

이것은 필자의 私見이지만 政府에서 有能한 作家나 監督을 確保해서 製作費에 拘애를 받지 않고 巨作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政府가 지원해서 製作한 “八道江山” “統八道江山”은 世界로 뻗어나가는 韓國의 「이미지」를 充分히 살린 劇映画로 큰 成功을 거둔 것은 事實이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事前에 치밀하고 科學的인 企業을 하고 效果 測定도 한 다음에 중점적으로 年2編程度의 巨作을 모든 部門에서 完벽에 가깝도록 만들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무대를 넓혀, 파리나 마드리드나 스톡홀름등 어디든지 좋은데 國內의 一流 캐스트와 外國의 허다못해 三流배우라도 좋으니 最大한 動員해서 北韓의 암흑상을 폭로하고 韓國의 進出相을 과시하는 식의 내용 같은 것을 화려한 國際舞臺를 배경으로 해서 짜임새있게 구성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政府가 주관이 되어서 대외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반공영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반공영화의 경우는 정부가 앞장 섰다는 인상을 일반에게 주지 않도록 하고 민간의 이름있는 영화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영화자체도 반공영화라는 것을 간판으로 내 세워서는 안 되고 극영화형식으로 하면서 그 밑바닥에 반공적인 내용을 깔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나치」의 선전상 「갯벨스」는 “선전엔 원칙이란 없고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 말은 반공영화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한 번 음미해 볼 만한 말일 것이다.

강연의 경우, 演士의 資質과 姿勢가 중요하다.

統一問題에 밝으면서 國內政治에도 밝은 사람이 大衆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간취하여 이를 지적하고 「꿈」으로 연결시켜 心理的인 飽滿感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연사라야 될 것이다.

難解한 學術的인 表現만을 나열한다든가 大衆의 慾求와 現實에서 동떨어진 長舌를 펴 보았자 政府의 강연회에 대한 不信感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필자는 73年 5月 자유수호의 달 행사로서 추진된 全國 순회강연 時에 忠南北地方을 다녀 본 경험이 있다.

20余個 市郡을 순회하면서 거의 가는 곳마다 동원 參集된 지방 有志級 人士들이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 주었다. 그 緣由를 알아 본즉, 종래 대부분의 정부주최 강연이 內容面에서 不滿스러웠기 때문에 강연회에 참석하는 氣分이 명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演士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중의 生理와 慾求를 외면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姿勢面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업적만을 장황하게 개진하는 것은 청중이 親政府人士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正論으로 國家의 進路를 힘차게 指示해 주는 폭넓은 태도를 원한다는 것이다.

演士의 자질과 자세가 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時間과 精力과 經費의 낭비라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주관부처는 이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항상 充分한 事前對策을 수립, 계획해야 할 것이다.

優秀한 「팀」을 구성하여 每年 문제지역 주민들에 대해 集中弘報를 실시하여 반발지역 주민들의 영향으로 인한 盲目的인 反政府的 感情의 他地域으로의 擴大를 막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大邱, 馬山, 井邑, 光州 등지가 그 좋은 실례이다.

반공영화와 옥내강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國民의一體感의 形成과 國民總和에 바탕을 두고 南北對決을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다) 媒体活用形態

반공영화와 옥내강연은 자극성과 은밀성을 동시에 지닌 홍보매체로서 이는 남북간 상호비방증지를 이행하는 최저조건하에서의 매체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지 교과서 등 자극성은 약하나 은밀성은 있는 매체와 병용될 수도 있고 이는 정상운영의 경우의 매체로 볼 수 있다.

즉, 매체활용형태의 제 1형식인 正常運營의 경우에는 媒体性格을 고려하여 옥내강연, 영화중심으로 기관지 교과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체활용의 제 2형식은 戰略運營으로서 이 경우엔 매체성격을 무시하고 은밀성의 원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남북접촉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그 책임이 북한측에 있을 경우에는 간접비방의 방법으로써 신문, 잡지까지를 黑色宣傳에 동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북접촉이 완전결렬되고 그 책임이 북한측에 있을 경우에는 정면공격의 방법으로써 신문, 잡지는 물론 T. V, 라디오 까지도 동원하여 對北비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접촉이 정상화되고 북한측이 성의를 회복할 경우에는 이같은 戰略運營形式을 正常運營形態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매체활용의 제 3 형식은 混合運營이다.

남북접촉이 長期的으로 소강상태에 접어 들고 고도의 전략·전술적인 북한측의 태도변경이 반복될 경우 모든 매체를 對北戰略戰術에 의거, 有機的으로 활용하여 위의 正常運營과 戰略運營의 방식을 適宜 混用할 필요가 있다.

라) 媒体別對策

반공사상을 고취함에 있어 雜誌의 경우 月刊은 지식층 위주로 차원높게, 週刊은 흥미본위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편집하고 잡지의 편집인을 통일연수소에 초치하여 통일문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新聞은 표현의 한계가 모호한 까닭에 편집에 있어 자심감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와의 常設對活通路를 개설하고 言論人에 관한 통일문제·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T. V의 경우는 출연자의 폭이 고정되어 협소한 느낌이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알찬 내용을 폭넓고 호소력있게 개진할 수 있는 새 얼굴을 등장시키는 것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다.

라디오방송은 회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며 그 素材도 빈약한 느낌이다. 자료지원과 함께 라디오 작가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욕을 북돋아 주고 방향감각을 잡아 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서는 반공교육내용이 체계성과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조사자료가 나와있는 만큼 통일교육의 지침하달과 관리를 통일원이 적극 실시하고 문교부 편수관실과 통일원 교육담당관실간의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지는 단네라즘에 빠져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가 빈곤하여 73년초에는 정부기관지 발간 계속문제 자체가 문제된 일까지 있다.

기관지 편집담당자들을 초치하여 광범위한 통일교육을 실시해서 전문가로 육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육내강연과 반공영화에 관한 대책은 前述한 바 있으므로 略한다.

6 . 結 論 및 建 議

南北接觸은 南北間 誤解와 不信이 解消되 기까지는 南北對決이다 .
이 對決은 具體的으로는 分野別 對決로서 우리의 한 分野가 北韓의 同一分野와 對決해서 이기는 部分이 압도적으로 많아야만 하는 實體的인 對決이다 .

동시에 이 對決은 우리가 아무리 圧倒的으로 勝利하더라도 北韓住民의 有血을 強要하지는 않게 되고 오히려 北韓의 한반도적 화야욕을 포기시켜 平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性格의 平和的 對決이다 .

이 對決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國民總和가 이룩되어야 한다 .

國民總和는 國民의 一體感이 形成될때 兇見되는 結果的現狀의 性格을 된다 .

이 國民의一體感은 國論統一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는 條件前提的인 命題이다 .

國論統一은 國民 모두가 國家의 最高目標과 그 推進方法에 대해 合意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

大韓民國의 最高目標은 平和的 祖國統一이다 .

이에 統一에 관한 政府의 弘報는 모든 弘報活動의 指導原理라 할 수 있다 .

統一弘報로 하여금 政府의 모든 一般弘報의 指導原理로 될 수

있도록 弘報體系를 効率的으로 運營하고 當院自体가 統一弘報의 重要性을 絶感하여 統一弘報政策 開發에 적극 努力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統一院, 情報部, 文公部間의 보다 實體的이고 高次的인 常設戰略弘報機構를 구성하고 斯界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제도를 채택하여 國家弘報의 理論的 「컨트롤 타워」구실을 할 수 있도록 早速措置할 것을 建議한다 .

政府와 言論機關間에 常設對話 「채널」을 설치하고, 統一研修所의 機能強化를 위한 予算支援策檢討와 研修對象擴大를 위한, 各部處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時速히 成事될 수 있도록 統一弘報戰略에 관한 基本的인 檢討가 있기를 아울러 建議한다 .